

疑惑질은 國會議事堂 신축설계

—本設計는 누가? 언제? 어떻게?—

설문

국회 사무처의 국회의사당 신축계획에 있어서 그 설계 공모 방법은 건축계에 또다시 波紋이란 주사위를 던져 주었습니다. 건축계가 감수해야 할 만족할 만한 주사위의 數作은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의 관심을 모으는 바입니다.

귀하가 원하는 공개 현상설계 경기는 「위대한 건축은 위대한 정치의 소산」이란 명언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 인지요?

1. 국회의사당 신축계획 설계안 공모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습니까?

2. 당선 작품 없는 우수작품 제출자의 저작권과 본 설계 참여 불인정은 받아 들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본설계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응모작품 제출 기한을 72일 12시간으로 공모하였는데 예술작품을 기계화할 수 있는지?

4. 당선작품 없는 우수작품만 결정하는 방법과 그 상금 70만원은 70억 규모의 공사비에 비해 어떻게 산출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공모 방법과 별도로 소위 6인에게 작품을 의뢰한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까?

6. 기타?

成 — 永 (東進建築)

1. 한말로 말해 한심하다. 형식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일을 왜 하는지?

2. 자가당착의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어떻게 당선작 없는 현상이 나올 수 있는가.

3. 예술 작품커녕 남의 나라 작품 모방도 힘들겠다.

4. 그래도 종이 값이나마 준다는데 감사하다. 이런 응모에 어떤 분들에게서 응모할지 이왕 형식이지만 권유도 필요할텐데.

5. 할일이 없으면 낮잠이나 자고 돈이 남아 돌아가면 사회사업에나 투자하시지.

6. 한마디로 말해 이번 국회의사당 설계 공모는 국내 건축가들을 불신한 것으로 본다. 이 나라에는 이렇게 사람이 없단 말인가?

安 仁 模 (三朋建築士事務所)

1. 失望, 까닭에 失意에 젖어 머엉합니다.

2. 當選작이 없으려니 하는 先入觀과 優秀作品 程度로 落着시키려는 底意(?)는 여러 建築人을 不信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3. 한 나라의 經綸殿堂이며 民主愛護의 寶殿인 國會議事堂 新築 設計案을 그 동안 미리 여유를 두어 충분한 創作 期間을 주는 조처를 얹고 무슨 火急한 막다른 골목에 부닥쳤기에 72日간이란 짧은 기간을 浩然히 紙上에 發表하는지 모르겠다. 마치 장마철을 앞둔 江中 孤島의 築堤마냥..... 저 건축의 先覺「르 꼬르비제」같은 이도 저렇듯 국회의사당 정도가 못되는 건물의 설계 創案도 생각하다가 着想이 내키지 않을 때는 석달 6달 아니 半年이 넘도록 放置해 두고 생각.....생각을 쉬었다간 하면서 創作過程을 넘긴다고 하는데, 하물며 國會議事堂 같은 設計案에 있어서라.

4. 優秀作品만 결정하는 方法? 2項에서 말한 대로 言語道斷으로 뭐라고 말할까? 70억 工事費에 賞金은 겨우 70만원? 建築家를 무슨 強制勞動收容所 抑留者로 취급하는지?

5. “具色을 위해 公募 參考, 깃발을 위해 6人 作品 의뢰”만 같이 여겨져서..... 원 그럴수가..... 6人 作品 의뢰라니 잘못 들은 건 아니오?

6. 기타: 國會議事堂 新築設計計劃案 募集! 오는 白日場은 꽤 붐빌거야! 무슨 科에 該當하나? 文科? 武科? 오라, 雜科겠구먼, 상감님 앞에서 치루는 양반科는 못되지! 대감님들이 다루는 常民相對? 그 양반들 建築家 보기를 저것들도 사람인가 뭐! 하는 것은 아니겠지.

1. 公告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不滿스러운 點들을 指摘할 수 있다.

(1) 公開募集과 指名募集의 二重募集 方式은 變則的인 것으로 본다.

(2) 當選者에게 本設計 參與權을 保障하지 않은 것은 原則에서 벗어난 것으로 본다.

(3) 應募作品을 基本設計計劃案의 테두리 內에 지나치게 엄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4) 應募期日이 짧은 것으로 본다.

(5) 當選作品에 對한 賞金이 너무 적은 것으로 본다.

2. 本設計進行方案은 當選作品과 指名作品이 決定된 後에 國會建設委員會, 技術諮問委員會, 審査委員會, 등에서 充分히 檢討하여 優秀作品의 作者들을 中心으로 設計委員會(假稱)등을 構成하여 本設計를 擔當하게 할 것으로 본다.

朴 永 晚 (古今建築設計事務所)

1. 評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最高機關인 立法部의 處事가 이렇게 釋然치 못할까? 恨嘆과 부끄러움에 어리둥절하다.

2. 當選作品 없는 優秀作品 提出者의 著作權을 빼앗고 本設計參與不認定이란 그 自體가 不合理한 것으로서 “終夜痛哭에 不知何 마누라喪事” 격이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므로 本設計는 언제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의 造化야 말로 普通常識으로서는 想像할 수조차 없다.

3. 應募作品提出期限을 72日間으로 짧게 한 것은 建築設計란 어떠한 經路를 밟아서 著作이 되는 것임을 도무지 모르는 그 사람으로서는 도리어 길다고 할 것이다. “모르는 사람은 쥐어 주어도 모른다”는 俗談이 있지 않은가.

4. 工事費에 비해 賞金의 多寡論은 且置하거나와 建築設計를 모르는 사람은 70萬원이면 아주 많은 것으로 짐작 하겠지? 可笑롭기만 하다. 啓蒙이 必要하군.

5. 別途의 六人作品依賴한 應募作品은 參考에 끝이고 休紙化시킨다는 前提이니 應募할 建築家가 있을는지? 審査員을 미리 發表하여 公明正大하게 人材를 養成하여야 될 것이요, 그 다음에도 方法이 있을 것이다.

6. 그들이 果然 建築設計란 어떠한 것인지들 아는지 모르는지, 國家最高機關의 威信을 세우고 또한 그 建物の 重大性에 비추어 懇히 물어 볼적하다.

1. 滿足이나 不滿足이란 語彙가 使用되기 以前의 이야기이다. 建築家로서는 想像도 할 수 없는 荒唐無稽한 處事이며 建築家를 愚弄하는 脚本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는 韓國近代建築史에 커다란 汚點을 찍는 것이며 後世의 建築界에 惡影響을 남길 뿐이다.

2. 當選作 없이 優秀作으로서 嶄新한 아이디어를 얻어 國會議事堂 新築設計에 參考한다는 것은 建築設計라는 作業이 着想에서 부터 完成에 이르기까지 一貫해서 거쳐야 하는 必然的인 過程을 舍혀 理解 못하는, 그야말로 常識 以前의 아이디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歷史的인 責任意識속에 積極的으로 參與코자 하는 應募者의 熱意를 惡利用하여 某種의 伏線을 찾고자 煙幕을 치는 것으로 밖에 解釋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狀況下에서는 本設計 實施에 關해서는 云謂할 餘地도 價値도 없다.

3. 도대체 無理이다. 國會側에 諸般 資料가 具備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그 龐大한 規模의 建物の 機能을 消化하고 創作意慾을 불태우기에는 너무 過少하다.

4. 70萬원은 어디에 根據를 두고 算出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作品 製作費의 補助金 程度라면 모르되 懸賞金이란 말 自體가 錯謬이 아닌가 생각된다.

5. 一般公募와 아울러 別途로 6人에게 作品을 依賴했다는 것은 建築界에 風波를 招來하였고 建築家 相互間의 離間은 勿論 眞情한 意味로서의 應募의 길을 막는 結果밖에 안된다. 民主主義의 殿堂인 國會議事堂新築이 이 나라에서 生을 享有하는 建築家의 共同關心事이고 보면 當然히 民主主義 方式에 依한 機會均等의 原則아래 公正한 懸賞設計競技가 實施되어야 할 것이다.

金 萬 盛 (連合建築)

1. 공고안 자체에 모순이 숨어 있음.

2.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있을 줄 안다. 그러나 이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3. 당국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난 사항이다. 시정되어야 한다.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4. 계획된 연극 각본같은 느낌을 준다. 계획된 연극 각본일지라도 1천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5. 당국의 저의를 숨기려는 한 가지 방법에 의한 졸렬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완전한 공개 설계 경기를 실시해야 한다.

6. 소위 지명된 6인의 행동을 주시하며 건축계의 정화를 위한 계기가 시급히 마련 되어야 하겠음.